

주 기 도 문 다 같 이

감사하는 믿음 (마 6:31-33)

사람의 인생이라는 것이 모든 것을 계획할 수도 없고, 계획한 대로 모든 일이 다 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미 그러한 사실을 충분히 경험해서 아실 것입니다. 뜻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뜻을 품을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뜻대로 되지 않는 한계를 가지고 있지만, 동시에 우리의 뜻과 계획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손길 속에서 하나님이 주셔야 먹을 수 있고, 하나님이 주셔야 입을 수 있고 소유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 우리의 삶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한평생 가운데 이것을 알고 누리는 것이 참 큰 복입니다. 따라서,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 삶에 허락해 주신 것으로 우리의 인생이 큰 결핍 없이 채워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염려하지 말 것을 명령합니다(31). 그리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권면하고 있습니다(33). 이것만 보면 참 어렵습니다. 염려 없이 살기도 쉽지 않거니와, 먹고 마시는 문제를 벗어나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산다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순종하는데 필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것으로 우리의 삶이 채워지고 있음을 아는 것입니다. 시편 128편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겉으로 보기에는 내가 얻은 소득은 내가 땀 흘린 대가처럼 보입니다. 내 생의 열매와 보람 넘치는 결과물들은 내 노력과 수고의 열매로 보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수고한 만큼 얻고 누리고 먹을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올바르게 신뢰할 수 있습니다.

오늘까지 우리 개인과 가정의 삶과 여정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바라봅시다. 당장에는 내가 힘쓰고 애쓰고 달려왔지만, 뒤를 돌아보며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과 하나님이 도우신 것과 하나님이 먹이신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우리 가정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분명하게 정리될 때, 우리는 염려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고, 먹고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주를 위해서 가는 삶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염려하지 말 것을 말씀하시면서, 주님 나라를 위해 살 것을 명령하시면서, 32절 말씀을 주십니다.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채우시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는 하나님이 이미 채우신 것을 알고 고백하고 감사하는 것과 함께 갑니다. 우리의 필요를 아셔서, 서로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필요를 아셔서, 이 가정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까지 우리의 삶의 다양한 경험과 은혜들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셨습니다.

이것을 알기에, 내일도, 앞으로의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채우실 것을 알고 신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아버지로서 우리에게 있어야 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회복하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시고 채우시는 것에 대한 신뢰는 막연하거나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분명한 실체와 열매를 가지고 있지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것을 알기 때문에, 염려가 서서히 물러납니다. 그리고 나를 위한 삶, 나의 물질, 나의 먹고사는 것을 위한 삶에서 벗어나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으로 방향 전환할 힘이 생겨납니다.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를 섬기는 삶, 주를 섬기도록 하신 부르심이 있습니다. 우리 삶에 채우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 우리의 삶을 채우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으로 나아가도록 힘과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때로는 불만스럽고, 때로는 화가 치밀어 오를 만큼 마음에 들지 않는 일들을 만날지라도, 우리에게 선한 일을 시작하시고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가족이 되길 바랍니다. 내 인생의 앞날, 우리 가정의 미래에 대한 염려와 불안이 밀려올지라도, 오늘까지 이미 신실함을 우리 가정 안에 입증하실 만큼 역사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서는 가족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의 믿음이 더욱 아름답고 복되게 자라가서, 이제는 앞으로의 일들도 염려하며 근심하는데 힘을 쓰지 않고, 주를 위해 기쁨과 감사함으로 섬기는 데 힘을 쓰는 복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